

CHRIST, ST. FRANCIS and FRANCISCAN THEOLOGICAL TERMS

그리스도, 성 프란치스코 및 프란치스코 신학 용어

오늘날, 프란치스코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인류 및 창조물과의 관계를 프란치스코적인 이해를 묘사하는 특정한 단어나 구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명확한 정의도 모르는 채, 많은 프란치스코 가르침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그의 인생을 통해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를 수리하면서 시작했을 때의 성인과 ‘태양의 노래’를 쓰고, 자매인 죽음의 팔에 안겨 하느님께로 돌아갔을 때의 성인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Franciscan Emphasis on the Blessed Trinity

프란치스코의 성삼위일체 강조

우리의 창설자가 거룩한 삼위일체의 각 인격을 통해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삼위일체 영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인께서 삼위일체의 각 인격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레오 형제에게 쓴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에서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당신은 삼위이시고 일체이시오며;
당신은 선 자체 이시며, 모든 선이시며, 지상 선이시나이다.
당신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오며 참 하느님이시나이다.¹

그는 또한 제 1 회칙 23 장에서는

“우리 모두 진정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가장 높으신 고 영원하신 하느님 삼위일체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이고, 만물의 창조주께 마음 깊이 흠송하며,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경과 모든 찬양을 드리고 온갖 좋은 것을 돌려드리며, 모든 이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분을 흠송합시다” 라고 썼습니다.

이제 하느님께 향한 성 프란치스코의 접근 방식이 삼위일체론적임을 확인했으니,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성인의 사랑과 헌신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 중심(Christocentric)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의 중심으로 개념을 발전시키기 전에, 성 프란치스코는 이미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아드님을² 통해 창조되었음을 이해했습니다.

영국 출신 신학자이며 작은 형제회의 고 에릭 도일 신부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¹ Francis of Assisi: The Saint, p. 109

² Rule of 1221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존엄성을 깨달으라고 일깨웁니다. 아드님의 모습대로 우리의 육신을 지어내시고 창조하셨으며,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과 비슷하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권고 5). 말씀이 사람이 되신 나자렛의 예수가 처음 인간의 육체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방금 인용한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은 풍부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간략한 문장 안에는 프란치스코 학파의 그리스도 중심적 비전과 심지어 존 던스 스코투스에 의해 제정되고 해설된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선성 이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우선성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우선성 (Primacy of Christ)

그리스도의 우선성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요한 복음서와 골로새서(1:15-20)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 예수님이 하느님과 함께했고, 그 말씀이 사실 하느님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존재는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쫓아내는 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서 서문 요약)

콜로새 서간에서, 성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느님의 온갖 총만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오로는 이 주요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우선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말이십니다. ...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말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15, 18)

모범자 그리스도 (Christ as Exemplar)

프란치스코의 자료들에서 종종 ‘모범’이라는 단어로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예수님의 강생을 하느님의 사랑과 선함의 표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강생이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기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모범자**이시며 **본보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청사진이며 중심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영적 권고 5 장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의 모습대로 그대의 육신을, 또한 당신 자신과 비슷하게 그대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지어내셨으니...”

그리스도는 원천이시며,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원본 예술 작품의 표현입니다.

HAECCEIATAS

라틴어인 ‘**HAECCEIATAS**’ 어휘는 영어로 ‘thisness’로 번역하고 있으며, 프란치스코 신학자 John Duns Scotus 는 모든 창조물의 독특함과 반복될 수 없는 특성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 ‘There’ll be Never Be Another You’의 가사처럼, 당신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 반복되어 창조되지 않을 것입니다. Haecceitas 는 개개의 인간과 각각의 모든 것들의 신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서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칸 렉시오 디비나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렉시오 디비나를 생각할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몰두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네 단계의 기도 방식의 전통적인 관상을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칸들의 관상은 그 이상을 넘어, 회개와 행동으로 가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녀 글라라가 프라하의 복녀 아녜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녀 글라라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녀 글라라는 신성한 독서 대신, **신성한 바라봄**을 제안했습니다. 십자가를 상상하며,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응시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응시**하면서, 마음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속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침묵 속에서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관상**하고, 성령의 영감이 역사하시도록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모방**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변화되고 그리스도 사업을 행할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 글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절은 기초적인 구조에 불과하며, 그 깊이를 다루려면 한 권의 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용어를 정의해야 될 것입니다. 아쉬운것은 제가 몇 가지만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에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프란치스칸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풍부한 프란치스칸 역사와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시기를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저도 성인께서 자주 쓰시던 어휘 ‘권고’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책 중 하나는 Thomas A. Narin 의 ‘The Franciscan Moral Vision: Responding to God’s Love’ (토마스 네른의 프란치스칸 도덕 비전: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입니다. 이 책은 프란치스칸 연구소 (Franciscan Institute)나 아마존(Amazon)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당신은 당신의 삶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만약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형상의 청사진이고, 모든 존재가 그를 통해 창조되었다면, 당신의 모든 창조물과 어떤 관계인가요?

당신은 인류와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의 생존과 번영을 어떻게 증진시키시겠습니까?